

‘광주예술의전당’ 새 출발... 클래식 정수 선보인다

문예회관 전면 리모델링 재개관 기념
11일, 빈 심포니&장한나 내한 공연
쇼팽 콩쿠르 우승 브루스 리우 협연
베토벤 교향곡 ‘영웅’·피아노 협주곡

‘광주예술의전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화려한 클래식 무대가 열린다.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기획음악회 ‘빈 심포니&장한나 내한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브람스와 베토벤의 음악으로 한국 클래식 팬들의 마음을 흔든 빈 심포니는 이번 공연에서 지휘자 장한나·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Bruce Liu)와 함께 베토벤 프로그램의 정수를 보여준다.

빈 심포니는 1900년에 ‘빈 음악협회 관현악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들의 선구자 정신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거듭하게 했고, 현재 빈의 문화대사이자 빈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내한공연에 함께하는 지휘자 장한나는 2017년부터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2022·2023 시즌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수석 객원 지휘자로 새롭게 임명됐다. 그는 11세 때 파리에서 열린 제5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

장일지로 대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7년 정식 지휘자로 데뷔한 이후 지휘에만 전념해왔다.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시작한 게 기였던 베토벤의 프로그램을 통해 빈 심포니와의 완벽한 호흡을 선사한다.

또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2021년)에서 오랜 짐목을 깨고 배출해낸 6년만의 우승자인 브루스 리우가 이번 빈 심포니 내한공연에서 호흡을 맞춘다. 잘 다듬어진 테크닉과 깊이 있는 곡 해석 능력, 그리고 이를 표현해내는 정교한 연주로 평단과 청중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는 현재 세계 유수의 극장과 오케스트라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와 지휘자 장한나, 그리고 빈 심포니가 함께 만나 빛어낼 음악은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 소식과 함께 기대를 모은다. 오는 6월 장애를 딛고 일어난 한 예술가의 자기 확신과 거칠 것 없는 외침을 이야기 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과 피아노 협주곡 3번의 가득 찬 에너지를 청량한 여름을 맞이할 예술의 전당을 찾은 관객에게 선사한다.

윤영문 초대 광주예술의전당장은 “2023년 예술의 전당 재개관을 기념하며, 광주시민 여러분을 위한 세계 최고의 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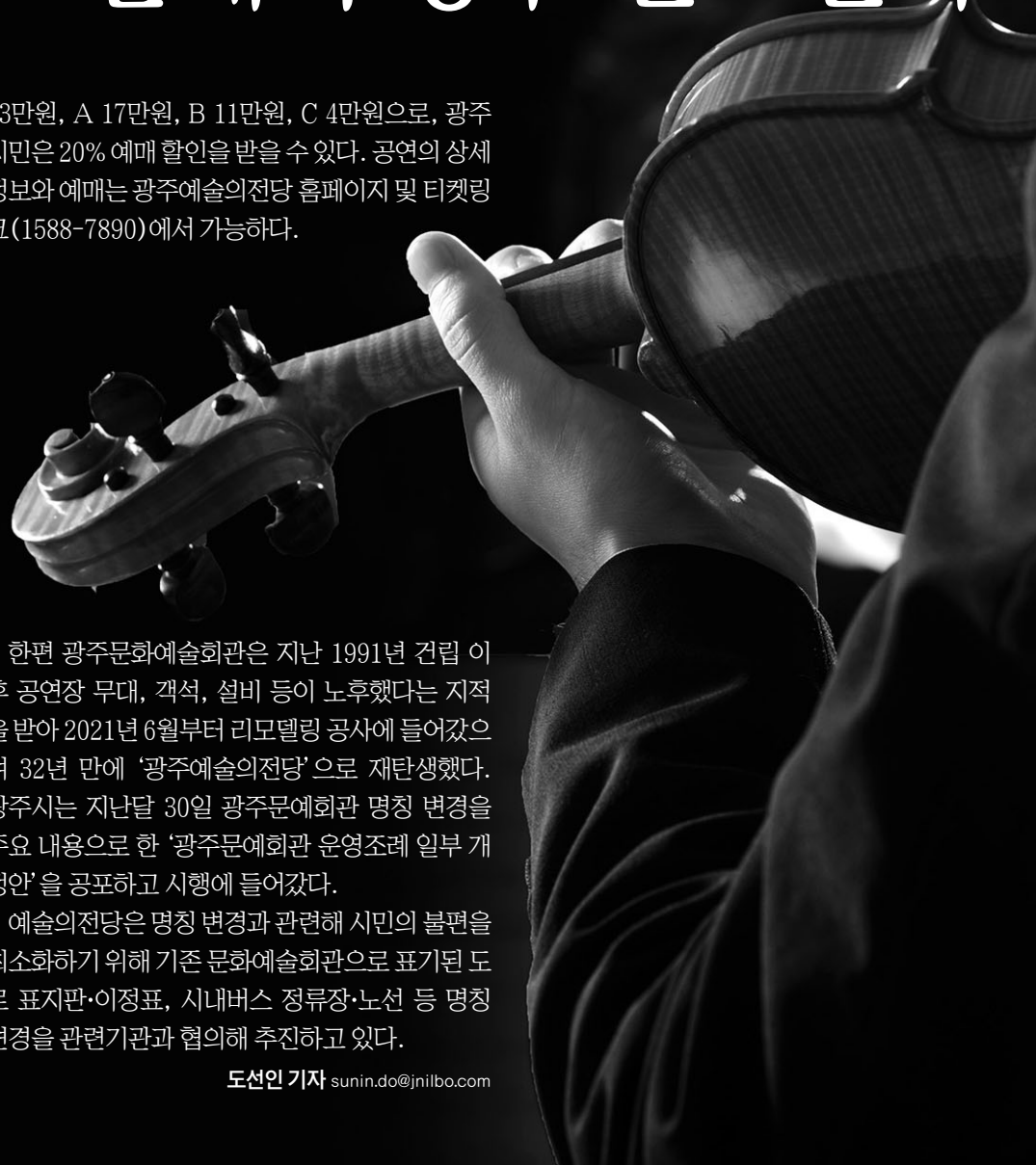
이번 ‘빈 심포니’ 공연의 관람료는 R 28만원, S

23만원, A 17만원, B 11만원, C 4만원으로, 광주 시민은 20%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연의 상세 정보와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한편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991년 건립 이후 공연장 무대, 객석, 설비 등이 노후했다는 지적을 받아 2021년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으며 32년 만에 ‘광주예술의전당’으로 재탄생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광주문예회관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문예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예술의전당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문화예술회관으로 표기된 도로 표지판·이정표, 시내버스 정류장·노선 등 명칭 변경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귀여운 캐릭터 통해 5·18 정신 알려요”

인절미·오일이·일팔이 등 대상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
수상작 20편 선정... 상금 16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2023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에서 ‘민주동이, 인권동이, 평화동이(김재호 작)’와 ‘인절미, 오일이, 일팔이(김수린, 서정원, 윤은총 작)’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포용이(유성훈 작)’와 ‘미지와 인지(윤예훈 작)’ 작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ACC는 지난달 26일 ACC 회의실에서

‘2023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ACC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상금 16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일반부문과 유아·어린이·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각 부문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총 20편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CC는 지난 3~4월까지 제출 받은 응모작 512편 가운데 주제 관련성과 작품성 등 평가기준에 따른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 발표했다. 수상작은 채널 ACC와 미디어 월, SNS 등 ACC가 운영하는 각종 소통 장구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심사위원회는 총평에서 “올해 공모전 출품작은 바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작품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ACC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 미래 세대에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8년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을 시작했다.

첫 해엔 동영상 27편, 2019년 웹툰 20편, 2020년 웹툰 10편, 2021년엔 영상 콘텐츠(UCC) 10편을 수상작으로 각각 뽑았다.

지난해에는 20편의 삽화(일러스트)와 그림일기 수상작을 달력과 홍보물로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 민주·인권·평화



ACC는 지난달 26일 ACC 회의실에서 ‘2023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ACC제공

가치를 알렸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시민 참여로 제작한 캐릭터를 활용해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더욱 확

산 하겠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이숙경 “국제관계 더욱 넓히고 싶다”

영 ‘휘트워스 미술관장’에 선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이숙경(사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맨체스터 대학의 휘트워스 미술관장으로 선임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맨체스터 대학 휘트워스 미술관(The Whitworth Art Gallery)의 수장으로 선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이트모던 국제 미술 수석 큐레이터로 있는 이숙경 예술감독은 영국의 권위 있는 맨체스터 대학 내 휘트워스 미술관에 합류하게 된다. 휘트워스 미술관장 임기는 오는 8월 시작되며, 동시에 트랜스컬처 큐레이팅(Transcultural Curating) 명예교수로도 활동하게 된다.

세계적인 대학인 맨체스터 대학 내 부설 미술관으로 1889년 설립된 휘트워스



는 문화예술 기관이다.

맨체스터 대학 부설 휘트워스 미술관 측은 이숙경 선임 관장의 선임 배경에 대해 테이트모던에서 재직하는 동안 ‘미술로 본 한해: 호주 1992’, 유럽, 미주, 아시아로 순회한 ‘백남준’ 회고전 등 여러 주요 전시를 기획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구입 위원회 및 판타스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호주 현대 미술관과의 공동 구입 프로그램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테이트의 국제미술 수집 전략을 형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글로벌 미술사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 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2023년 4월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2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정됐던 이숙경 예술감독은 선임 당시에도 테이트에서 근무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동시에 한국과 아시아 미술을 유럽의 동시대 미술 현장으로 유입시키는 데 힘써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휘트워스 미술관장 선임 소감과 관련해 “영국과 국제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관객 중심적 예술기관 중 하나인 휘트워스 미술관의 관장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 관계를 더욱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집안의 평안과 번창 기원하는 ‘남도성주굿’

10일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

집안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는 굿이 진도에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진도)에서 토요일상설공연으로 부부 세습 무가 박영태·이장단을 초청해 굿 무대를 꾸린다.

전라도 세습무가인 박영태·이장단이 준비한 ‘남도성주굿’은 집안의 평안과 번창을 위해 성주신(집을 지키는 신)에게 비는 굿으로, 보통 집을 새로 지어 입주하거나 이사를 할 때 진행된다.

이번 굿은 신에게 굿을 하는 이유를 아뢰고 가족의 재수를 축원하는 ‘안당’을 시작으로 조상과 여러 신들을 굿판에 자리하게 하는 ‘선부리’, 집안을 수호하는 성주신과 집터를 관장하는 지신을 맞이해 가정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성주굿’을

선보인다.

또 아기를 점지하는 삼신할머니를 초청해 자손들의 건강과 재수를 기원하는 ‘지양맞이’와 마지막으로 굿을 마무리하는 ‘중천’까지 연행한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오랜 기간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박영태 악사의 다양한 장단과 악기 연주, 이장단 무녀의 굿을 이끌어가는 예술성 높은 기예를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